

## 권력관계로 읽는 「죽은 사람들」: 약자에게 힘을 부여하기

최 석 무

### I. 서 론

크리티컬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는 텍스트의 비판적인 읽기를 강조하는 교수방법이다. 여기서 비판적이란 “평등하고 공정하면서 윤리적인 교육 및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텍스트 속에 함축된 권력관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한다(Canagarajah 932). 권력관계는 흔히 인종, 계급, 젠더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에서 정전으로 가르치고 있는 영문학 작품의 다수는 지배집단의 지배를 옹호하는 권력관계를 보여준다. 즉, 영국/상류계층/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비판적인 독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결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특정한 방식으로 정돈되고 구조화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McLaren 173). 영국 내에서 영문학 작품은 영국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제3세계에서 영문학 작품은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상태의 영국인 대리인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다(Viswanathan 437). 비판적인 시각 없이 영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는 영국인과 영국적인 것을 표준으로 보고 동양인이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권력층

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따라서 인종, 계급,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문학 텍스트를 가르치는데 있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통한 영문학 작품 비판적 읽기는 정반대되는 권력관계를 옹호하는 글을 읽음으로써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응구기(Ngugi)는 아프리카에서는 영문과를 폐지하고 “아프리카 어문학과”를 신설해야 하고, 영문학이 아니라 “아프리카 문학이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439). 그러면 영어로 작품을 쓰는 내국인 없는 우리나라에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영문학 작품에 정반대되는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 필자는 영국 식민지하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라고 본다. 조이스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약자를 작품에 등장시키고 이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의 글쓰기 방법은 크리티컬 리터러시가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철학인 크리티컬 페다고지(critical pedagogy) 교육관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크리티컬 페다고지는 “약한 자에게 힘을 부여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공평함을 바꾸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McLaren 160).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의 글쓰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약자에게 힘을 부여하기 위해 약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죽은 사람들」(“The Dead”)을 통해 알아보려한다. 많은 비평가들은 마지막 눈이 내리는 장면(snow vision)에서 가브리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지에 주목하였다(예를 들어 Walzl). 본 논문은 이와 달리 소외된 약자들의 관점에서 약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글쓰기를 조이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한다. 특히 누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 II. 아일랜드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쓰기를 위해 몰칸(Morkan) 자매가 개최하는 파티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죽은 사람들」은 조이스의 아일랜드에 대한 태도가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작품이다. 조이스는 “로마에 사는 동안 아일랜드에 대한 태도가 변했고, 「죽은 사람들」에서 그 새

로운 인식을 구현하였다”(Ellmann, “The Backgrounds” 18). 그는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에서 더블린을 “필요 이상으로 거칠게 다루었고, 그 도시의 매력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한다. 특히 아일랜드의 환대의 전통은 “유럽 다른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전통을 높이 산다(Ellmann, *James Joyce* 231). 가브리엘(Gabriel)도 연설에서 환대의 전통을 아일랜드의 “독특한 전통”(203-04)이라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역사적으로 아일랜드의 환대의 전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가브리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결함”(204)이라 한 것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전통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정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을 지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Mengham 79). 그러나 조이스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환대의 전통이 아일랜드만의 매력이라고 직접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해석을 경계하고자 했다. 그는 환대의 전통을 통해 아일랜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그는 환대의 전통의 소중함을 역설하지만 그는 환대를 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파티 장을 떠나 “밖에서 혼자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192)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환대의 전통의 수호자인 두 이모를 “무식한 여자”(193) 취급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과 자신의 계급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의 지적수준이 낮아 그의 연설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작품 끝부분에서 그들을 “속물”(vulgarians, 221)이라 비하한다. 그는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교양이 그와 다르다”(179)고 생각하며 우월의식을 느낀다. 파티 참여자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그의 태도는 환대에 감사하고 그 전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조이스는 환대의 전통을 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브리엘을 반아일랜드적인 인물로 묘사한다. 이 작품 여러 부분에서 가브리엘은 반아일랜드적인 행동을 취한다. 그는 아일랜드적인 것을 탈피하기 위해 영국식 및 대륙식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는 아내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골로세스(goloshes)와 같은 유럽식 덧신을 신게 한다. 그가 선택한 여행지는 아일랜드 서부가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또는 독일”(189)과 같은 유럽이다. 그것도 “친구와 자전거 여행”(189)을 계획하고 있어 아내는 배제되어 있다. 그는 연설할 때 브라우닝(Browning), 밀턴(Milton) 등의 영국시인을 인용한다. 또한 브라우닝 작품의 리뷰를 쓰고 이를 친영파 신문인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지에 기고한다.

그가 과거 영국 지배자를 언급하는 모습에서도 피지배민으로서의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영국과 신교도 권력의 노골적인 상징”(Torchiana 233)인 “웰링턴 기념상”(Wellington Monument, 192; 203)을 두 번 생각한다. 웰링턴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영국의 명장이 되었지만,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며 아일랜드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한 사람이다. 또한 아일랜드를 정복한 영국의 “윌리엄 국왕상”(King Billy’s Statue, 209)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영국 국왕에 대해 조금도 반감을 보이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처럼 “더블린이 배경이지만, 더블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Hodgart 53). 특히 이 작품은 아일랜드 서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흔히 조이스 학자들은 가브리엘이 3명의 여성, 즉, 릴리(Lily), 아이버즈양(Miss Ivors), 그레타(Gretta)에 의해 상처를 받는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Tindall 43). 흥미롭게도 이들 3명의 여성은 공통적으로 아일랜드 서부 출신이거나 서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아일랜드 서부는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담론의 중앙에 있는 민족주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지역이다. “서부는 영국적인 경치와 가장 큰 대조를 보이므로 아일랜드 문화의 본거지”로 여겨졌다(Nash 44-5). 서부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영국의 문화에 가장 동화되지 않은 지역이다. 특히 서부 여인을 “인종적, 성적, 문화적 순수성에 대한 관심과 미래의 독립된 아일랜드의 사회적 도덕적 조직”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민족의 상징적 존재로 여겼다(Nash 45). 그레타는 서부 “코노크트(Connacht) 출신”(189)이다. 릴리의 경우에는 그녀가 가브리엘의 “성을 부를 때 3 음절”(177)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발음은 그녀가 게일리어를 사용하는 서부지역 출신임을 암시한다(Torchiana 227). 아이버즈양은 아일랜드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서부로 여행가서 아일랜드 언어를 배우라고 권유하면서 그레타의 고향이 서부 코나크트인지 묻는다. 이때 그는 서부가 “그녀의 가족”(189)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그녀와 서부의 연관성을 애써 부인하려한다. 서부로 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들떠 좋아하는 그레타의 모습은 그녀가 “결혼이후엔 고향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Norris 487). 이는 가브리엘이 얼마나 아일랜드적인 것에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준다. 그렇지만 조이스는 작품 결말을 가브리엘이 서부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끝맺으면서 그의 태도의 변화를 암시한다. 반영국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서부로의 여행은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부출신으로 민족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는 그의 아내에 대한 태도 역시 아일랜드를 받아들이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가 아내에게 “이제까지 어떠한 여성에게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고 그러한 감정이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224)는 것은 아일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하녀와 노파

「죽은 사람들」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릴리와 가브리엘의 이모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조명해볼 수 있다. 이 작품이 「릴리, 관리인의 딸」(175)로 시작되고 그녀를 규정하는 신분이 두 번째 단락에서 반복되어 제시된다는 점에서 조이스는 그녀가 하녀라는 점을 중시한다. 릴리는 피지배국가인 아일랜드의 여성이며 하녀라는 점에서 3가지 측면, 즉 인종, 젠더, 계급의 측면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인물로 그녀가 가브리엘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글자 그대로 발이 닳아빠질 지경”(175)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그녀는 “시키는 일에 있어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아 세 명의 주인과 잘 지내고 있다”(176)고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대꾸를 자제했고 터무니없는 요구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Norris 480). 그녀의 희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녀에게 식사를 권하지 않았고, 가브리엘도 연설에서 그녀의 노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파티가 파하는 3부에서 그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그녀가 교육이 끝났으니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브리엘에게 “얼굴이 붉어지고,” “침착성을 잃게”(178)하는 수모를 겪게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그녀의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말실수에 기인한 정당한 방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랄하고 갑작스런 말대꾸”(178)로 규정한다. 릴리의 “말대꾸”는 이미 시작 부분에서 그녀의 주인들이 “참을 수 없는 유일한 것”(176)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며 여성인 릴리가 가브리엘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뒤에

등장하는 여성들(아이버즈양, 그레타)이 가브리엘을 어떻게 대할지 짐작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이스는 하녀인 릴리를 통해 이 작품이 전통적인 상/하의 권력관계가 전복되는 작품임을 보여준다. 그녀의 이름도 의미심장하다. 백합(Lily)은 전통적으로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장례식과 부활절”에 사용된다(Gifford 112). 이 작품의 제목이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녀는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존재이다. 이 작품에서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하층민이라 할 수 있는 릴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 약자의 중요성을 암시해준다.

케이트 이모(Aunt Kate)와 줄리아 이모(Aunt Julia)는 파티를 개최한 주인이고 릴리의 보스라는 점에서 특권계층이라 할 수 있다. 가브리엘의 연설에서도 그들은 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현재상황은 그 반대이다. 그들은 “체격이 작고 평범한 옷을 입은 노파”(179)로서 조카인 메리 제인(Mary Jane)과 살고 있다. 그들은 몰칸양(Misses Morkan)으로 호칭되고 이전에는 오빠인 팻(Pat)과 같이 살았다는 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다. 팻이 죽은 후에는 살던 집을 떠나 “어셔 아일랜드(Usher’s Island)에 있는 어둡고 음산한 집”(175)의 이층을 빌려서 사는 처지이다. 이제는 빌린 집에서 파티를 개최하는 일을 제외하고 사회적 이목을 끌지 못하는 이들이다. 작품 시작부분에서 그들은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뒤통을 했다”(176)고 언급되어 있지만 작품이 진행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다. 작품 시작부에 “줄리아 이모는 이제 백발이지만 여전히 아담과 이브 교회의 수석 소프라노이다”(176)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성가대에서 쫓겨난 신세이다. 가브리엘은 “체격이 작고 평범한 옷을 입은 노파”(179)인 두 이모와 달리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젊은이”(178)로 등장한다. 가브리엘은 겉으로는 연설을 통해 존경을 표하지만, 연설문을 구상하면서 아이버즈양을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193)라고 할 때, 그의 이모들은 “두 무식한 여자”(193)라는 암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다. 파티를 개최했고 아일랜드 환대의 전통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는 연설을 하는 그가 이모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의외이다.

조이스는 두 노파에게 힘을 주기 위한 글쓰기를 위해 두 이모의 장점을 부각한다. 줄리아 이모가 노래를 부를 때, 가브리엘은 그녀의 “야윈 모습”(224)을 보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예상한다. 그렇지만 그녀의 노래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톤이 강하고 깨끗한 목소리는 곡을 미화하는 빠른 음으로 힘차게 이어졌고, 아주 빨리 노래했지만 장식음의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목소리를 따라가면 빠르고 안전하게 하늘을 비상하는 듯한 흥분을 느끼고 나누는 듯했다”(193). 케이트 이모는 노래를 잘하는 줄리아가 성가대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반박한다. 그녀는 “교황이 평생 열심히 봉사한 성가대에서 여자들을 쫓아내고 쫓내기 소년들을 앓힌 것은 잘못된 일”(195)이라 말한다. 그녀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문제에 도전하는 결코 무식하지 않는 여성이다. 음악적 재능에 관해서도 그녀는 그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여성으로 “파킨슨”(Parkinson, 200)이라는 테너가 가장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한다. 테너 가수인 바텔 다씨(Bartell D’Arcy)가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200)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그녀가 가브리엘과 대화하는 장면은 그녀가 결코 무식한 여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가브리엘이 할아버지인 패트릭 몰칸(Patrick Morkan)에 대해 이야기할 때 케이트 이모는 가브리엘이 말한 내용 중 잘못된 정보를 지적한다. 즉, 패트릭이 “아교 보일러공”이었다는 말에 “풀 공장”(208)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그의 저택과 공장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자 이를 교정해 준다(209). 그렇지만 가브리엘은 그녀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한다. 조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 지식인 가브리엘과 노파인 케이트 이모의 권력관계를 전복하고 있다.

#### IV. 군소인물

군소인물들 중에서 프레디(Freddy)와 브라운(Browne)씨는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파티에서 소외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조이스 특유의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술꾼인 프레디는 모든 사람들의 염려의 대상이다. 그가 “술에 취해 울까 매우 걱정”(176)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가 작품에 등장하기 전부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케이트 이모는 가브리엘에게 “그가 술에 취해있으면 올려 보내지 마”(182)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을 통해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누가 왔느냐는 질문에 줄리아 이모는 “다름 아닌 프레디아”(only Freddy)(184)라고 말하면서 그의 가치를 절하한다. 그는 케이트 이모와 제인에게 “끔직한”

(terrible)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85; 211). 사람들은 가브리엘을 위해 셀러리(celery)를 남겨두는 등 신경을 쓰나, 프레디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 프레디가 건강을 위해 셀러리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현재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고 셀러리가 혈액에 아주 좋다는 말을 들었다”(201).

브라운씨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교도이다. 그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가톨릭교도들과 어울리려 한다. 케이트 이모가 말하듯이, 그는 “어디가나 있는”(207) 사람으로 “크리스마스 내내 [그녀의 집에] 머무른다”(207). 이것은 신교도와 가톨릭교도로 분열된 아일랜드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그는 작품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만, 소외당한다. 그가 케이트 이모에게 여자들이 그를 “무척 좋아하는 이유”(182)를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듣지 않고 사라진다. 그는 여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류사회에 편입하려고 하지만 무시당한다. 그는 여인들에게 농담을 건네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를 무시한다. 그의 “거무스름한 피부”(182)는 그의 소외받는 현실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아일랜드 신교도들은 16세기 이후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주한 정착민의 후손으로 가톨릭교도와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아일랜드인을 흑인에 비유하였다. 즉,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중부와 동부 사람보다 검고,” “턱이 나오고 검은 아일랜드인은 흑인과 비슷하다”는 논리를 세웠다(Curtis 72). 이는 한 민족을 유색인종에 비유하여 정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이다.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해 약자가 그들과 다르다는 논리를 세운 것이다. 브라운씨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약자에 해당하기에 피부색이 검게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레디와 브라운씨는 공통적으로 가브리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가브리엘은 “기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빌려준 1파운드를 [프레디가] 갚았다”(218)고 말한다. 이를 보아 평소에 가브리엘이 그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가브리엘의 브라운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혹독하다. 프레디는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브라운과 거리를 유지하려 하지 않으니 안됐어”(218)라고 말하면서 브라운이 소외되어야 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조이스는 소외받고 있는 프레디와 브라운씨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줄리아가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다. 브라운씨는 줄리아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앞으로 나갈 때 부축을 한다. 프레디는 “그녀의 노래를 더



잘 듣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193), 가장 나중까지 박수를 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브라운씨도 그녀의 손을 잡고 “신동을 청중에게 소개하는 쇼맨처럼” 그녀를 소개한다(194). 이 두 사람은 경쟁적으로 파티에 기여를 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더욱 소외를 받는 인물인 프레디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줄리아 이모와 케이트 이모가 밥을 먹지 않고 서빙 하는데 열중하자, 브라운씨는 “앉아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권한다”(198). 반면에 프레디는 케이트 이모를 “잡고 의자에 털썩 앉게 하여”(198) 실제로 밥을 먹게 한다. 가브리엘의 연설이 끝나고 노래를 부를 때도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즉, 브라운씨는 노래를 부르게 유도하는 “리더”(206) 역할을 하고, 프레디는 “푸딩 포크로 장단을 맞추거나”(206) “포크를 높이 들어 지휘자 역할”(207)을 한다. 역시 프레디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추위 속에서도 마차를 잡으러 간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차를 잡은 것은 프레디이다. 그렇지만 브라운씨의 모습은 어디서나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디가 자신의 어머니인 맬린스 여사(Mrs Malins)를 마차에 타게 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브라운씨이다.

브라운씨는 유일한 신교도로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 파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만, 신교도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가 마차를 타면서 행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일단은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으로 가자”(210)는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영국지배층 자녀를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트리니티 대학이 그의 삶의 이정표처럼 보인다. 또한 그는 프레디와 달리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 프레디는 “흑인 추장”이 “그가 이제까지 들어본 테너 중에서 가장 훌륭한 테너 목소리를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199)이라고 극찬을 한다. 이에 브라운씨는 “테디가 진짜 좋은 것은 발견하는 군”(199)이라고 비꼬자, 프레디는 “그가 왜 목소리를 가질 수 없지, 그가 흑인이기 때문인가?”(199)라고 “날카롭게 반문한다.” 브라운씨는 프레디 보다는 자신이 남들에게 인정받는다 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한 것이다. 조이스는 브라운씨의 정치적 배경의 한계와 소외받는 입장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브라운씨와는 달리 프레디는 또한 남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가브리엘이 프레디를 비난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프레디는 “헨리가에 조그마한 크리스마스카드 상점을 열기 위해”(218) 돈을 빌렸다. 이

상점에서 얻은 수입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Gifford 125)는 점에서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테너 가수인 다씨는 프레디와 브라운씨처럼 주위인물로부터 소외받는 인물이다. 그는 “Mr Bartell D’Arcy, the tenor”(184; 199)로 두 번이나 직업이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다. 메리 제인이 “더블린 전체가 그에 대해 떠들고 있지요”(184)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인정을 받는 테너 가수로 나온다. 하지만 그는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테너로 인정받지 못한다. 브라운씨는 “더블린에서 들을만한 노래가 있었을 때”를 회상하며 오늘날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목소리가 없다”(199-200)고 말한다. 테너 가수 면전에서 하는 이 말은 다씨를 모욕하기 충분한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그날 밤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그 날 밤에 노래를 부르려 하지 않았고 술도 마시기를 꺼려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부르던 노래를 갑자기 그만 두자 계속 불러달라는 요청에 “내 목이 까마귀처럼 쉰 게 안 보이세요?”(212)라고 통명스럽게 말한다. 이러한 그의 “무례한 말”(212)은 브라운씨의 말에 그가 가수로서의 자존심에 무척 상처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주위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에게 중대한 역할을 맡긴다. 그는 비록 “가사와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했지만”(211), 그가 부른 “오그림의 처녀”(The Lass of Aughrim)라는 노래는 그레타를 감동시킨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국이나 이탈리아 가수의 위대함을 말하지만(199-201), 그레타를 감동시킨 것은 그날 파티에 참석한 다씨의 노래이다. 또한 그 노래가 “옛날 아일랜드 음색”(211)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일랜드적인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 V. 죽은 사람들

이 작품의 제목인 「죽은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산 자보다 죽은 자의 영향이 더 중요함을 암시한다. 다씨가 부른 노래 “오그림의 처녀”는 귀족에게 배반당해 자살한 여인에 대한 노래이다. 그레타의 애인이었던 퓨어리(Furey)는 이 죽은 여인에 대한 노래를 즐겨 불렀다. 그리고 그레타의 마음은 죽은 퓨어리가 지배한다. 죽은 사람은 퓨어리와 그레타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다. 조이스는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퓨어리는 그레타가 “그는 나를 위해 죽었어”(221)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살아있었을 때는 약자 중에 약자에 속했다. 그는 “가스공장”(221)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는 “허약한 소년”(220)으로 병으로 죽는다. 그는 “검은 눈”(220)을 가졌고 “나무가 있는 벽 끝에 서있었기에”(223) 어둠을 연상시키는 존재이다. 그는 프레디가 말한 흑인 주장과 같은 존재이다. 이 작품은 살아서 사회에서 소외된 자와 지금 죽어 없는 자도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음”(199)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퓨어리는 또한 아일랜드, 특히 아일랜드 서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서부 골웨이 출신이다. 가브리엘이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언급한 새논강은 “새논강의 반항적인(mutinous) 물결”(225)이라고 묘사되어있는데 이는 “서부의 퓨어리와 같은 성격”을 암시한다(Elmann, “The Backgrounds” 26). 역사적으로 아일랜드 서부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 영국이 정복하기 아주 힘든 지역이었다. 퓨어리가 서부 출신이라는 점은 영국에 저항할 수 있는 아일랜드인이 그레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모습은 가브리엘과는 사뭇 다르다. 가브리엘은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한 젊은이”(178)이며, 교육을 잘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눈 덮인 다니엘 오코넬(Daniel O’Connell)상을 보고 “하얀 남자”라 칭하고, “친한 듯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한다”(216). 그의 “하얀 남자”라는 칭호는 눈이 쌓인 웰링턴 기념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몰칸 자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옷에 눈이 쌓인 가브리엘 자신도 “하얀 남자”이다. 반면에 퓨어리는 “검은 눈”의 검은 남자로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보잘 것 없는 인물로 보이지만, 그레타에겐 영원히 기억되는 불멸의 남성이다.

죽은 자의 중요성은 브라운씨가 말하는 이탈리아 극단에 소속된 가수들에게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 작품이 쓰인 20세기 초에는 죽은 가수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더블린에서 들을만한 노래”(199-200)를 불렀던 가수들로 알려져 있다. 퓨어리의 중요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좋은 목소리를 가졌고 건강만 아니면 노래를 공부하고 싶어 했다”(222). 오늘날 더블린에서 들을만한 가수가 없다는 것은 퓨어리와 같은 가수가 죽은 것과 연관이 있다. 사실 가브리엘도 연설을 할 때 죽은 자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그는 “[과거의 위대한 가수들이] 죽어 잊혀질 때 . . . 궁지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죽어 사라져버린 자들의 기억을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합시다”(204)라고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내 그레타는 궁지와 애정으로 옛 애인 퓨어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피커(Peake)는 “따뜻함이나 로맨스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에만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더블린을 “병적인 도시”로 규정한다(53). 그렇지만 이 작품을 통해 조이스가 약자/부재한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했다는 점에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다.

## VI. 결론

『죽은 사람들』은 20세기 초 지배세력이라 할 수 있는 영국/상류계층/남성 중심의 권력관계를 전복시키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조이스는 영국/아일랜드, 상류층/하류층, 남성/여성, 젊은이/노파, 주인공/군소인물, 산자/죽은 자 등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약자인 후자에게 힘을 주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가브리엘로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좋은 가문출신의 건장한 젊은 남성이다. 조이스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는 인물들이 가브리엘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작품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작품 끝부분에서 가브리엘이 서부의 여행을 결심하는 장면은 이제까지 자신이 견지해 온 가치관을 포기해 버리는 행위이다. 전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지향하는 조이스의 인생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가브리엘의 서부 여행은 의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문예부흥론자들이 서부를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서부의 가난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몰레넨(Mulrennan)이 만난 서부에서 만난 노인처럼 서부는 조이스에게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다.

『죽은 사람들』에서 서부의 승리는 약자에 대한 조이스의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조이스는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일랜드의 식민지적 상황은 그가 권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그는 식민지 작가로서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공평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권력관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약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글쓰기를 통해 영국의 지배를 받는 아일랜드 현실을 전복하고자

했다. 그의 약자에 대한 배려는 영국/아일랜드간의 정치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계급, 젠더 관점에서의 권력관계는 조이스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작가임을 보여준다. 크리티컬 리더러시를 통한 문학연구는 이러한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문학을 통해 실현하는데 주력한다. 「죽은 사람들」은 크리티컬 리더러시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텍스트로 독자로 하여금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의 약자에게 관심을 쏟게 하는 작품이다.

(고려대)

## 인용문헌

- Canagarajah, Suresh. "Critical Pedagogy in L2 Learning and Teaching."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Ed. Eli Hinkel.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5. 931-49.
- Curtis, L.P., Jr. *Anglo-Saxons and Celts: A Study of Anti-Irish Prejudice in Victorian England*. Connecticut: U of Bridgeport P, 1968.
- Ellmann, Richard. "The Backgrounds of 'The Dead.'" *Joy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William M. Ch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18-28.
- \_\_\_\_\_. *James Joyce*. 2nd ed. New York: Oxford UP, 1982.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2.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2.
- Hodgart, Matthew. *James Joyce: A Student's Guid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 McLaren, Peter. *Life in Schools: An Introduction to Critical Pedagogy in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Longman, 1998.
- Mengham, Rod. "Military Occupation in 'The Dead.'" *Re: Joyce: Text, Culture, Politics*. Eds. John Brannigan, Geoff Ward, and Julian Wolfrey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77-86.
- Nash, Catherine. "Remapping and Renaming: New Cartographies of Identity, Gender and Landscape in Ireland." *Feminist Review* 44 (Summer 1993): 39-57.
- Ngugi, wa Thiong'o. "On the Abolition of the English Department."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Eds.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London: Routledge, 1995. 438-42.
- Norris, Margot. "Stifled Back Answers: The Gender Politics of Art in Joyce's 'The Dead.'" *Modern Fiction Studies* 35.3 (Autumn 1989): 479-506.
- Peake, C. H.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8.
- Torchiana, Donald T. *Backgrounds for Joyce's Dubliners*. Boston: Allen & Unwin, 1986.
- Viswanathan, Gauri. "The Beginnings of English Literary Study in British India."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431-37.
- Walzl, Florence L. "Gabriel and Michael: The Conclusion of 'The Dead.'" *James Joyce Quarterly* 4 (1966): 17-31.

## Abstract

### “The Dead” and Power Relations: Empowering the Powerless

Seokmoo Choi

When a text is read from a critical literacy stance, the emphasis is placed on how to criticize power relations embedded in the text. The reading methodology aims at constructing “more egalitarian, equitable, and ethical educatio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English literary works accepted and taught as canons in school, critical literacy needs to be applied in order to stop those works from endorsing the interests of the powerful. “The Dead,” in which power is given to the powerless, can be read as an alternative text to those English works.

By presenting the tradition of hospitality as a strong point of Ireland, Joyce demonstrates his positive view of Ireland. Gabriel, who feels superior to guests invited to Misses Morkan’s Christmas party, is humiliated by three women who are associated with the West of Ireland, the symbolic place of Irish independence.

Women, in general, and disadvantaged women, in particular, are empowered in the work. By setting Lily, a housemaid, as the first character to appear in the story, Joyce points out that a housemaid is strong enough to defy Gabriel, an Irish intellectual. And though Aunt Kate and Aunt Julia are treated as two old ignorant women by Gabriel, they evince that they are not weak and ignorant.

Minor characters such as Freddy, Browne, and D’Arcy are presented as more positive characters than the main character, Gabriel. Though marginalized for different reasons, Freddy and Browne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party. D’Arcy, though he was not recognized as a good tenor by the guests, was influential enough to move Gretta.

As implied by the title of the story, the dead are more important and influential



than the living. Gretta is immersed in the memory of Furey, while other characters praise the dead Italian singers.

In “The Dead” Joyce empowers people who are powerless or voiceless in Irish society. As one of the best texts that can be read from a critical literacy stance, it presents power relations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many English literary works.

■ **Key words**: critical literacy, critical pedagogy, class, race, gender, James Joyce, “The Dead,” *Dubliners*

(크리티컬 리터러시, 크리티컬 페더고지, 계층, 인종, 젠더, 제임스 조이스, 「죽은 사람들」, 『더블린 사람들』)

논문 접수: 2009년 11월 20일

논문 심사: 2009년 11월 30일

게재 확정: 2009년 12월 22일